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22년 12월

휴머니잼

참가안내

[문학] 작은 책장으로 떠나는 여행

★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반짝이는 말들을 찾아서

[역사] 어느 역사가의 만물상

★ 세월이 지나 응축된 맛을 지닌, 사건이 아닌 사물로 보는 세계사

[철학] 청소년, 권력을 마주하다

★ 권력은 어떻게 폭력을 낳았는가?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잼"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잼" 게시판에서 신청 폼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잼)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22년 12월 휴머니잼] 강좌후원금

초등부 문학, 중등부 역사 20만원(각 10강), 고등부 철학 10만원(5강)

▶ 회원은 80%만 납부

<u>▶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u>

---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오프라인 강좌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병행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강좌 기간 초·중등부는 총 3회, 고등부는 총 1회의 휴강이 있습니다.

문학
초등

작은 책장으로 떠나는 여행 (10강)

★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반짝이는 말들을 찾아서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2022년 12월 4일~2023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 각 강의별 제목에 책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강의 전에 꼭 읽고 와주세요!

여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작은 책장이 있습니다. "아, 또 책이야? 지겨워" 라고요? 툭하면 책 좀 읽으라는 지긋지긋한 어른들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사람들에게 책이 지긋지긋한 원수처럼 여겨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만화영화나 웹툰을 보며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 속의 세상으로 훅하고 빠져들어 간 적이 있지 않나요? 재밌는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장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가지런히 꽂아뒀습니다.

길게 늘어져 있는 글자들의 미로 앞에서 막막한 당신을 위해 재밌는 이야기가 그 길을 안내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우리 앞에는 어떤 말들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응원해주기도 하고, 함께 이겨내 주기도 할 그런 힘을 가진 말들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줄 반짝이는 말들을 얻기 위한 여행을 함께 떠나보지 않을래요?

1강_ 『엄마가 남긴 27단어』, 샤렐 바이어스 모란빌, 아름다운 사람들

무대 위에서 멋진 옷과 모자를 차려입고, 마법을 부리던 '위대한 알리기에리'씨가 바로 코비 알리기에리의 자랑스러운 아빠예요. 사실 엄마는 아빠보다 더 멋지고 비밀스러운 진짜 마법을 부릴 수 있지만 이건 오직 코비만 아는 비밀이랍니다. 5년째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는 엄마는 여행을 떠나기 전 마법의 힘을 가진 27개의 단어를 알려줬어요. 하지만 그 단어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엄마가 떠난 뒤 혼자 알아내야만 했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법을 부려 코비와 주변 사람들을 지켜줬던 단어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강_ 『우리 반 인터넷 사이트 고민의 방』, 재클린 윌슨, 시공주니어

스피드 선생님이 어느 날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요. 바로 '고민의 방'.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들키지 않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훌륭한 게시판이랍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담아둔 채로 누구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기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기 당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고민의 방’에 그 고민을 털어놓아 보세요. 그럼 누구라도 당신의 고민을 함께 나눠줄 거예요.

3강_ 『치외법권 위니 공화국 회고록』, 리사 그래프, 씨드북

위니는 자신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열 명의 동네 친구들이 위니의 작은 나무집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위니와 친구들! 아무리 힘이 센 어른이라도 100년 전 사라진 피타지오 공화국의 땅에 있는 위니 공화국에 함부로 침입할 수도 마음대로 아이들을 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부모에 대해 벌이던 이 시위는 어느새 전 세계의 어린이와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져 갑니다. “애들은 부모 말을 들어!”라고 화를 내는 어른들과 “온 세상의 어린이를 위해 절대 지지 말아!”라며 환호하는 어린이들. 세상과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4강_ 『웨이싸이드 학교 별난 아이들』, 루이스 쌔커, 창비

웨이싸이드 학교는 한 층에 교실이 하나씩 있는 30층짜리 건물이에요. 이 특이한 학교에는 엉뚱한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이곳에서는 글씨를 거꾸로 읽고, 종일 머리카락 숫자를 세고, 교실에서 졸다 깬 학생이 잘 자는데 왜 깨우냐고 화를 내는 일 정도는 별일도 아니죠.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똑똑해’ 하고 비밀을 말해준 선생님에게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다들 아는 건데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유쾌하게 무너뜨리는 웨이싸이드 학교의 일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강_ 『기호 3번 안석뽕』, 진형민, 창비

툭 하면 '공부 잘하는 학교', '사이 좋은 학교',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뻔한 말들뿐인 학생회장 선거는 참 재미도 없고, 실제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학교를 위해 학생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던 학생회장들은 대체 우리의 심부름꾼인지 선생님들 심부름꾼인지…. 이 지루한 학생회장 선거판에 혜성처럼 나타난 후보, 기호 3번 안석뽕! 특별히 잘난 거 없는 동네 친구 셋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우리가 원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지?' 그리고 폼나는 선거 벽보가 탄생했습니다. "일등만 좋아하는 학교, 너나 가지삼! 일등부터 꼴등까지 다 좋아하는 학교, 우리가 만드셈!"

6강_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진형민, 창비

"엄마, 나 만원만 주면 안 돼?" 용기 내 엄마에게 말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돈이 땅을 파서 나오는 줄 아냐?', '쬐끄만 게 돈 쓸데가 어디 있다고', '용돈 받은 건 어쩌고?', '돈 맡겨놨어?' 같은 말들뿐. 좋아, 주지 않겠다면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어, 그런데 대체 돈을 벌기 위해선 뭘 해야 하는 걸까요? 동네 집주인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돈만 잘 벌던데, 우리는 전단지를 이렇게 열심히 돌렸는데 왜 돈을 벌기가 힘들까요?

7강_ 『거짓말 학교』, 전성희, 문학동네어린이

"여러분은 세계를 뒤흔들고, 새 역사를 만들, 그런 위대한 거짓말을 배우기 위해 이 학교에 왔습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학교 '매티스 스쿨'. 미래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통해 입학한 아이들만이 거짓말이라는 위대한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학교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사실 세상의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거짓말 학교 출신이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기업의 회장? 국회의원? 법조인? 아마 그들 역시 이 학교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거짓말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걸지도…?

8강_ 『순재와 키완』, 오하림, 문학동네어린이

소중한 친구의 목숨과 인류의 발전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친구를 살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위대한 연구를 성공시킬 수 있고, 전 인류는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커다란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발전을 일으킨 당신이 역사에 길이 남는 명예와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 멋진 옵션도 있지만, 이 소중한 친구와 다시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없게 되겠지요. 그때 누군가가 당신의 귀에 속삭입니다. '재 하나만 없으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걸?' 이 세상에는 정말 누군가를 희생하더라도 얻어야만 하는 것이 있는 걸까요?

9강_ 『아빠와 나 그리고 아빠?』, 이기규, 휴먼어린이

세상에는 같은 성별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들의 사랑이 이상하고 잘못된 사랑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곤 합니다. 정말 같은 성별을 사랑하는 일은 끔찍하고 잘못된 일인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사랑인 걸까요? 주인공 효이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빠의 애인 연우민이 너무 미웠거든요.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는 그가 다정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도 하고, 멋지기도 한 사람이란 걸 알아버렸어요. 게다가 우리 아빠처럼 평범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 그저 같은 성별의 사람을 사랑할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10강_ 『꽃섬 고양이』, 김중미, 창비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네 편의 짧은 이야기에는 다양한 동물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작고 약하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작고 약한 존재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애를 써야만 합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작고 약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외롭고 지칠 때, 이야기 속 동물과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합니다. 너는 약하고 못났다며 미워하거나 돌을 던지는 대신 서로를 포근히 안아줍니다. 그렇게 작고 약한 우리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역사 중등

어느 역사가의 만물상 (10강)

★ 세월이 지나 응축된 맛을 지닌, 사건이 아닌 사물로 보는 세계사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오프라인〉 2022년 12월 4일~2023년 2월 26일 오후 1시 〈일요강좌, 온라인〉 2022년 12월 4일~2023년 2월 26일 오후 3시 30분
오리엔테이션	※ 오프라인 :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 온라인 : 모든 강좌는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은 강좌 전 시간을 정해 접속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역사는 긴 시간만큼이나 굵직한 사건들만큼이나 널리 알려진 위인들만큼이나 거대하고 묵직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감자, 고양이 심지어는 치킨이라니! '역사'라는 말로 거론하기에는 조금 하찮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어 대수롭지 않아 보일 뿐이지, 사물들 속에는 아주 오랜 시간과 그 과정에서 쌓인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역사책만큼이나 꽉꽉 눌러 담겨 있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물들도 현재의 이야기를 담아 언젠가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겠죠.

아무튼 자잘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로 가득한 이 역사가의 만물상에서는 무엇을 집어 들든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분명 예전보다 역사를 폭넓고 다양한 시선으로, 그리고 보다 가깝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강_ 감자의 세계여행 : 음식은 어떻게 현실을 왜곡했는가?

역사적으로 감자는 인간을 배고픔으로부터 해방해 주는 천사의 작물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인간을 배고픔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악마의 작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양면성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것일까요? 작디작은 감자 한 개와 다양한 음식을 통해 인간의 생생한 역사를 만나봅니다.

2강_ 커피와 설탕, 그 달콤 씁쓸함에 대하여 : 음료를 통해 본 희로애락

누군가에게는 긴 밤을 잠들지 않고 버티기 위한 용도로, 누군가에게는 향과 맛을 즐기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는 음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료는 누군가에게는 눈물이기도 혹은 피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3강_ 고양이의 보은 : 동물의 역사도 필요한 이유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곤 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가 아니더라도 학대당하는 동물은 미디어에서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답은 동물의 역사에 숨겨져 있습니다.

4강_ 작은 고추는 왜 매운가? : 외모지상주의의 기원

'작은 고추가 맵다.', '키 큰 사람은 싱겁다.' 오래 전부터 내려온 외모에 관한 대표적인 속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와 비슷한 속담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존재했다고 하네요. 왜 이런 속담이 서로 존재조차 몰랐던 나라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했을까요? 그것은 외모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상 곳곳 모든 인간 사회를 비추는 공통의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알아낼 수 있다면 지금 우리를 오징어로 만드는 외모지상주의의 원인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5강_ Manners makes Man : 알고 보면 추한 것들

사람들은 매너와 에티켓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본인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켜야 할 규칙 아닌 규칙들이 많은 건지 매너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매너와 에티켓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왜냐고요? 그 이면에는 상대방에 대한 아름다운 배려보다는 추악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6강_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 배설물을 통해 본 인류의 미래

DDONG…. 웩, 이 더러운 것에도 역사가 있을까요? 하지만 인간이 똥을 언제나 더러운 것으로만 취급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똥을 하트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금만큼 귀하게 취급했던 심지어는 돈을 주고 사고 팔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신기하기도 하지만 기분이 찝찝하고 묘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더러운 덩어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힌트는 바로 이 배설물의 역사에 숨겨져 있습니다.

7강_ 치느님은 발까지 희생하사 : 치킨 공화국의 비밀

여러분도 치킨 좋아하세요? 닭요리는 그 대중성만큼이나 소비되는 방식을 통해 그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는 좋은 소재입니다. 한국 사회가 왜 치킨 공화국이 됐는지, 왜 이제는 2만 원을 넘어 3만 원에 가까운 금액의 치킨을 먹어야만 하는지, 더 맛있는 치킨을 먹기 위해 역사를 거울삼아 함께 찾아보지 않으시겠어요?

8강_ 아파트를 욕망하다 : 집과 차별의 상관관계

집은 원래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긴 세월 동안 집은 주거라는 단순한 목적 이상으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를 반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옥의 아름다움의 이면에 남성과 여성, 양반과 하인 사이의 차별이 깔려있었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사는 집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차별을 반영하고 더 나아가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9강_ 빼앗긴 광장에도 봄은 오는가 : 광장의 사회학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사람들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은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렸습니다. 시계를 더 과거로 돌려봐도 한국 현대사에서 광장은 단순히 사람들이 오가는 일상의 장소가 아니라 역사를 뒤바꾸는 정치와 저항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광장이라는 공간은 역사 속에서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했고, 또 어떤 기능을 했느냐에 따라 한 사회를 읽어낼 수 있는 매우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광장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어떤 광장을 꿈꿔야만 할까요.

10강_ 소년은 정말 푸르렀을까? : 청소년 史

언제는 다 큰 애가 나잇값도 못하냐고 했다가 언제는 주변인이니 질풍노도의 시기니 하며 한없이 불완전한 취급을 받는 존재. 그래서 결국엔 여기에 끼어들기에도, 저기에 끼어들기에도 모호한 존재. 하지만 세기를 뛰어넘는 고전으로 남은 로맨스의 주인공 로미오와 줄리엣, 이도령과 성춘향의 나이는 불과 16세였다는 거! 십대의 정체성은 역사적이랍니다.■

철학
고등

청소년, 권력을 마주하다 (5강)

★ 권력은 어떻게 폭력을 낳았는가?

참가자	17~19세 고등부 청소년
개강	〈토요강좌〉 2022년 12월 10일~2023년 1월 14일 오후 1시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 각 강좌의 큰 제목은 미리 봐두면 좋을 만한 텍스트들입니다. 물론 보지 않아도 수업 진행의 차질은 없겠지만, 가능하면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강좌 후에라도 찬찬히 읽어본다면 권력에 대한 고민에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우정이나 사랑? 아니면 경쟁? 아마 “권력”이라는 두 글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권력과의 싸움은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청소년들을 대할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꼰대’라는 이름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꼰대 기질과 거리를 두고 청소년들과 친구처럼 지낼라치면 어김없이 따갑게 내리꽂히는 어른들의 권력 어린 시선이라든지, 누구 하나를 더 찌질하게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청소년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라든지…. 주변엔 하나같이 권력을 증오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미묘한 권력관계들로 얽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작은 권력들이 왕이나 귀족들의 절대적인 권력에 비할 바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혹자는 그래서, 잘게 쪼개져서 나도 한 움큼 정도는 쥘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힘의 조각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다의 인문학 강좌를 찾는 누군가는 보석처럼 빛나는 지성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권력에 대해 다룬다고 하면 니체나 푸코처럼 권력을 설명하려고 했던 매력적인 사상가들과의 만남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나다에서 나누는 그저 그런 이야기 속에 (그 속에 그대의 워너비 지성들이 그득하다고 해도) 담고 싶은 것은 내 옆 사람과 그 옆 사람,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포함한 세계에 대한 빼곡한 이해입니다. 나의 빛나는 지성이 주변 사람들을 눈부시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순위를 매기는 것 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는, 제도 교육의 공부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에 대한 거리두기를 위하여 권력을 탐구해 봅시다.

1강_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독재를 그리워하다

교과서에도 실린 소설 속의 상징적 인물 '엄석대'를 과거의 어느 위대한 독재자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 현대사의 상징적 인물이 되살아나 다시 독재를 꿈꾸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독재자가 퇴장한 소설의 엔딩, 그 이후의 이야기를 상상해봅시다. 반 아이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일그러진 영웅이 사라진 후에도 그를 그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아주 불가능한 추측은 아닐 것 같습니다.

2강_ 파리대왕 : 야만에 대한 공포

서구 문명이 발견한 오지의 인간들은 인간보다 동물을 더 닮아있어서인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떠돌았고 서구의 문명인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갑자기 웬 시대착오적인 내레이션이냐고요?

야만인들은 오지를 떠나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 따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너무나 잔인한 생태를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이성의 빛이, 문명의 빛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야만종족의 이름은 '청소년'입니다.

3강_ 1984 : 빅브라더, 언제나 내 마음속에

1948년 소설가 조지 오웰은 1984년의 미래를 엄격하게 통제된 전체주의 사회로 예언했습니다. 조지 오웰의 미래는 이미 오래전의 과거가 되어버린 현재, 우리는 조지 오웰의 예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걸까요?

혹시 당신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악몽을 꾼 경험이 있습니까? 현실에선 차마 하지 못할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 잠에서 깨어 왠지 모를 자책(또는 쾌감)에 젖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모두 그런 꿈들을 매일 밤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과 무의식마저도 감시당하는 초(超) 전체주의 사회에 살 게 될 거라고, 조지 오웰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4강_ 완장 :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다른 학교들처럼 우리 학교에도 이상한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선배라는 폼 나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완장을 차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들은 후배들이 학교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한 술 더 떠 나름의 집단 내 규정을 만들어 군림하기도 합니다. 나도 그들이랑 친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가끔은 다가가서 이런 아부성 멘트를 날리고 싶습니다. “선배님, 완장 졸라 멋져요. 개목걸이 같아요.”

5강_ 돼지의 왕 : 개와 돼지에 관한 진실

보통 개와 돼지는 한데 묶여서 ‘개돼지’라고 쓰일 때가 많습니다. 못난 사람을 빗대어서 개돼지 같다거나 개돼지만도 못하다는 식으로 표현하죠. 하지만 한 애니메이션에서는 청소년을 개돼지가 아닌 개와 돼지로 구분합니다. 청소년은 개와 돼지처럼 엄연히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구별이 가능하다면, 당신은 개일까요 돼지일까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양을 대충이라도 가늠할 수 있다면, 당신의 정체를 알아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공동체 나다 2022년 12월 휴머니잼 소개 마침■